

美 JFK 공항 폭발 테러 음모 적발

연료탱크·파이프라인 폭파 계획... 용의자 3명 체포 1명 추적중

미국 뉴욕 JFK공항을 폭파하려던 테러 음모가 계획단계에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2일 뉴욕 JFK공항에 연료를 공급하는 항공기 연료 공급탱크와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려던 테러음모자 3명 체포하고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러음모의 표적이 뉴저지 린든에 있는 연료를 정유시설에서 공항으로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주타지역까지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번 음모가 계획단계에서 적발돼 항공기와 다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또 이번 테러음모자들은 JFK공항의 항공기 연료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사전에 비디오 촬영, 비디오 테이프를 베네수엘라 북동부에 있는 섬인 트리니다드로 가져와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는 이번 테러 음모사건 적발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싹한 음모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음모가 성공했다면 폭발로 인한 피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 JFK 공항직원이거나 출신 미국 시민인 러셀 테프레이타스, 알람 카디르, 카멜 이브라힘 등 3명의 용의자를 붙잡아 구속중이며 또 한 명

의 용의자인 압델 누르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음모자 중 한 명인 카디르는 무슬림으로 가이아나의 전 국회의원이었고 이번에 트리니다드에서 테러음모자금을 확보하려다 붙잡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가이아나 경찰 지휘관은 말했다.

가이아나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있는 인구 77만명의 군소국가로 7% 가량이 무슬림이다.

CNN은 테러음모자들이 알-카에다 등 외부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 같지는 않다고 자생적 테러조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미 당국은 1년 전에 시카고 시어스타워와 FBI 건물을 폭파하려는 음모를 적발, 7명을 체포했고 한달 전엔 뉴저지의 포트 디스에 대한 테러 음모를 꾸민 6명을 체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하루 1천편·년 화물 150만 처리...항공물류 '허브'

■뉴욕 JFK 공항은

2일 적발된 폭탄테러 기도사건의 표적이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은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주요 '관문'으로 미국 내 가장 복잡한 공항 가운데 한 곳이다.

JFK공항은 지난 1948년 '뉴욕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 같은 해 첫 상업비행을 처리했으며 존 F. 케네디 전(前) 대통령 암살사건 한 달 뒤인 1963년 12월 현재 불리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JFK 공항은 하루 평균 1천편 이상의 비행편을

처리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국제선이다.

연간 이용 승객은 4천500만명에 달하며 연간 150만, 1천200억달러 상당의 화물을 처리, 항공물류의 '허브'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공항 터미널 및 기내식 공급, 지상 근무원 등 3만5천명이 근무하는 JFK공항은 뉴욕 시의 동쪽지역 근로자에게 거대 고용주이기도 하다.

뉴욕 시 당국은 JFK공항이 매년 뉴욕 경제에 300억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으며 역수로 110억달러의 가치가 있는, 2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튜닉을 위한 nude 자원자들

벌거벗은 자원자들이 3일 암스테르담의 다리 위에서 자전거에 탄채 미국 뉴스 사진 작가 스펜서 튜닉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BDA 제재 임시 중단 가능성”

美 외교協 새모어 부회장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에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임시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BDA가 앞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 재무부는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임시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BDA 자금을 돌려받고, 적어도 당분간 이 은행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미 재무부는 일정 기간 BDA를 주시하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BDA의 주인까지 바꿀 필요는 없고 경영진 교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법자금을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中 이번엔 ‘독성 치약’ 마찰

FDA, 사용중단 권고에 中 “품질 기준 부합” 해명

중국과 미국이 펫푸드(애완동물사료)에 이어 ‘독성’ 치약 문제로도 한바탕 격돌할 조짐이다.

중국 업체 관계자들은 2일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전날 중국산 독성 치약 사용을 중단토록 권고하고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해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 당국에 의해 독성치약 제조업체로 거명된 중국 회사 관계자는 로이터 통화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DEG)을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당국도 앞서 중국산 치약이 저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EG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정상인이 먹으면 큰 위험은 없으나 특히 어린이가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나 신장이나 간에 나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성분이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中 황취 부총리 사망...상하이幫 흔들리나



장쩌민 최측근...후진타오 권력강화 계기 될 듯

중국 상하이방(幫)의 거두이며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인 황취 부총리가 2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69세.

중국 신화통신은 권력서열 6위이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황 부총리가 이날 오전 2시3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당국은 부고에서 황 부총리를 “공산당 우수당원이고 모든 역경을 극복한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 부고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표된 것이다.

황 부총리는 지난 1938년9월 저장성 자산에서 태어나 1966년3월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청화대학 전기공학계열 전기제조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 정치국 위원과 상하이시 당서기를 역임했으며 2002년11월 정치국 상무위원, 2003년3월 부총리로 임명됐다.

황 부총리는 1963년 상하이인조 기계공장에서 기술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상하이 시정부

로 들어가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까지 승진했다.

황 부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그가 맡고 있던 중국 경제와 금융을 총괄하는 업무는 ‘철남자’ 우이 부총리가 공식 이양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황 부총리 사망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권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황 부총리의 사망은 올 가을 열리는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대)를 앞두고 권력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후 주석과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장 전 주석간의 치열한 암투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日 입항 북한인들 “한국에 가고 싶다”

日 대북관계 악화 우려 곤혹

2일 오전 일본 선박편으로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에 입항한 남녀 4명이 일본 경찰당국에 “5월 27일 북한 정권을 출발했다”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또 북한을 탈출한 동기들에 대해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했으며, 배에는 물과 식품 이외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독약이 든 병도 갖고 왔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탈북자들은 50대 후반의 남성과 60대 전반의 여성 부부, 20대 후반과 30대의 아들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오모리현 경찰은 일단 불법 입국 혐의로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국관리국에 신병을 인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로 가고



2명의 북한인들(중요 오른쪽)이 2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에 소형 목선을 타고 도착한 뒤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을 허

용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구매국 지위 2등급으로 격상을”

김장수 국방, 美에 요청

김장수 국방장관은 2일 미국 정부가 해외로 무기를 수출할 때 상대국에 적용하는 ‘구매국 지위’를 상향 조정하고 공군 KF-16 전투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품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리다 호텔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하는 ‘구매국 지위’를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현재 나토에게는 FMS 1등급을, 호주·일본·뉴질랜드에는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억 달

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때만 미국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기간은 15일 이하로 짧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3등급인 한국은 구매액이 5천만 달러가 넘으면 일일이 미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철수가 예정돼 있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다산 부대에 대해 “전세계에 다니며 아프간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프간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KA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이제 청소는 카처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일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 2년제이상 졸업자
- ◎ 남,녀(30세미만)
-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 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